



## 국내외 언론의 시각과 주문

40년 만에 세계 최고에 오른 원전(原電) 기술력', '우리 기술과 정상 외교 기량이 만나 일군 47조 원전 수출', 'UAE 원전 수주, 원자력史 새로 썼다. 미래 세대 먹여 살릴 녹색 성장 동력 되기를', '원전 추가 수출 지원 대책 꼼꼼히 짜야', '사상 첫 원전 수출 ... 국가적 경사다', '5% 기술 장벽도 넘어 아부다비 감동 이어가자', 'UAE로부터의 낭보' '新중동特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한국 原電 역사에 신기원을 이루다', 'UAE 원전 수주 향한李大통령의 '녹색 외교', '1조달러 원전 블루오션... 'UAE 개가' 이어나가야', '가슴 뿌듯한 한국형 원전 첫 수출 개가'...

한전 컨소시엄의 UAE 원전 수주가 확정된 이후 나온 국내 주요 중앙 일간지들의 사설 제목이다. 거의 한결같이 이번 UAE 원전 수주에 대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이번 UAE 원전 수출 성사에 대한 중앙 언론의 시각과 주문을 사설을 통해 들어보고 외신보도도 살펴본다.

### 국내 주요 종합 일간지

<서울신문>은 두 차례의 사설을 통해 “지난 1959년 미국차관으로 도입한 연구용 원자로로 원자력 연구개발을 처음 시작한 이래 반세기만에 이룬 쾌거다. 국가 경제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형 원전 시대를 여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한국 원자력 역사를 새로 쓰게 한 이번 수주는 우리의 기술력과 외교력·협상력이 거둔 총체적 승리이다. 원자력 기술 자립을 위해 밤낮 없이 열정을 바친 원자력 공학자들과 ‘열사의 나라’에 한국형 원전을 첫 수출하기 위해 지난한 공을 들여 온 한국전력·현대건설·삼성물산·두산중공업 등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 그리고 수주전 막바지에 UAE를 급거 방문해 지원 외교로 힘을 실어준 이명박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번 수주로 한국은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시장 쟁탈전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 정부가 UAE 외에도 요르단, 터키, 중국 등 주요 발주국들에 전 부처의 수주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제2, 제3의 낭보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내친 김에 우리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설

계코드, 원자로 냉각재 펌프, 원전제어 계측장치 등 핵심 원전기술의 국산화를 서둘러 100% 기술자립을 빨리 이뤄줄 것을 당부한다.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은 필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인식부터 바꾸라. 국내용으로 다루던 원전 건설 산업을 마케팅전략까지 포함하는 수출산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형 원전의 브랜드 파워를 키울 시스템 정비 작업도 시급하다.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원화된 원자력 행정 체계도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현재의 원자력 행정 체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조선일보>도 두 차례의 사설을 통해 “원자력 발전은 핵물리학·기계·전자·전기 등 공학의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한 기술이며 200만개 기기가 한 치 오차 없이 들어맞아야 정상 운전되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다. 다른 제품과 달리 안전이 생명인 원전을 수입하는 나라는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기술 수준을 최우선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원전 수출은 우리 공학 전 분야가 외국이 자국의 안전을 맡길 정도로 신뢰를 얻게 됐다는 증거다.”며 우리의 원전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가 이런 기술 선진국이면서 핵 강국인 나라들과 경쟁하는 것은 언뜻 힘겨워 보이기도 했다. 수주 전 전 과정을 막후 지휘하던 이 대통령이 막판에 UAE로 직접 날아가 외교 총력전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외교 분야에서 세계 어느 정상에도 뒤지지 않을 경쟁력을 갖고 있다. 우리 기술력과 대통령의 경제 외교력이 합쳐지면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이어질 것이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기여에 대해 치하했다.

그리고 “1971년 고리 1호기 착공 때만 해도 국내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원 사택을 짓고 모래와 자갈을 나르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 기술자들이 선진국 기술장벽을 뚫기 위해 발로 뛰고 몸으로 때우면서 갖은 설움과 수모를 겪어야 했다.”며 원자력 1세대들의 노고를 기리고 “남은 과제는 원전설계 핵심 코드와 원자로 냉각재 펌프, 원전 제어계측장치 등 3대 핵심기술까지 모두 자립하는 것이다. 이제 국내 원전 수출의 길도 열린 만큼 원전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완전한 기술 자립을



이명박 대통령이 칼리파 UAE 대통령과 계약 서명식에 참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우리 기술진은 환경근본주의자들의 거센 비난 속에서도 원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국내 원전의 가동률이 세계 평균(70%)보다 훨씬 높은 90% 이상을 기록한 것이나, 원전 건설 단가가 경쟁국보다 훨씬 낮으면서 공기는 10개월 이상 단축한 것은 이들의 노력 덕분이다.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및 운영 능력이 이번 계약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며 이번 계약에 대한 진정성을 거론하고 “원전 수출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는 기술력만 갖고는 성사되기 어렵다. 한 국가의 외교력과 국제 금융 능력까지 총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아부다비를 방문하는 등 폭넓은 지원활동을 벌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원전 수출 원년’이 열리면서 거대 시장에 진입하는 물꼬가 터졌다. 하지만 아직 2%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한국은 일부 핵심 원전기술을 여전히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가 2012년까지 신형 국산 원전을 개발키로 한 만큼 지금부터 기술 자립의



김쌍수 한전 사장과 칼둔 알 무바라크 UAE 원자력공사(ENEC) 회장이 원전사업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속도를 올려야 한다. 경쟁국에 비해 항상 미흡했던 국제 금융시장의 장기금융 조달 능력도 키워야 할 것이다. 지금은 원전 수출의 삼폐인을 터뜨리기에 앞서 들메끈을 고쳐 매야 할 때다.”고 신중한 후속 발걸음을 주문했다.

〈동아일보〉도 두 차례의 사설을 통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55달러이던 1959년,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고 당시로서는 거금인 42만 달러를 지원해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마크Ⅱ를 미국에서 수입했다.”고 원자력 초창기의 척박했던 시절을 돌아보고 “UAE에서 날아온 낭보(朗報)는 반세기 만에 원자력 불모지에서 원자력발전소 수출국으로 변신했음을 알려준 국가적 경사다.”고 축하하면서 “UAE 원전은 중동지역 첫 원전이다. 물보다 기름이 싼 산유국조차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이산화탄소배출이 없는 원전 건설에 뛰어들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세계원자력협회는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430기 이상의 원전, 약 1조 달러의 신규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본격적인 원전 수주 레이스는 이제 시작이다. UAE 원전을 완벽하게 건설하고 핵심기술을 국산화함으로써 원전을 조선 반도체 휴대전화처럼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분야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UAE 원전 사업이 창출하는 고용 효과를 거론하며 “10년간 UAE 파견인력은 연인원으로 적게는 4000명, 많을 경우 수만 명이 되고 국내에 새로 생겨날 일자리는 적게 잡아 10만6000개를 헤아릴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하고 “국내 원자력 관련 고급인력은 5000명 정도에 불과해 서둘러 양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과거와 달리 플랜트는 물론이고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녹색산업도 경쟁력이 있어 원전과 동반진출이 가능하다. 이런 간접고용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결국 원전 수출에서 얻을 수 있는 고용 효과는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원전 수출이 가져올 신(新)중동특수를 잘 관리하면 국내 일자리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고 고용 효과에 대한 대처를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일궈낸 이번 쾌거의 의미는 크다. 무엇보다 1959년 연구용 원자로를 첫 설치한 이후 원자력 기술을 차곡차곡 쌓아온 지 50년 만에 비로소 원자력 수입국에서 명실상부한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게 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며 원자력 반세기만의 쾌거를 치하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을 국제 사회로부터 공인받았다는 뜻도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설계에서부터 건설·가동에 이르기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최첨단의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자력 선진국과의 수주 경쟁에서 승리를 거둬으로써 우리나라가 브랜드를 끌어올리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문화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대항전의 총감독’으로 나선 외교 총력전이 가능성 5%라는 초반의 세(勢)불리를 딛고 막판 반전을 이뤄낸 것이다”고 UAE 원전 수주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을 높이 사고 “UAE 원전 수주는 한국 원자력, 나아가 한국 경제의 열린 기회를 선취했다는 의미가 더욱 크다. 또한 중동 지역의 첫 원전 프로젝트인 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등이 원전 건설 의사를 밝히고 있어 선점 효과에 따른 제2의 중동 붐도 기대할 만하다. 녹색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UAE 개가는 원전 르네상스·중동·녹색성장 등 한국의 미래 시장을 잇는 가교로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이번 수주의 후속 효과를 기대했다.

한편 <문화일보>는 1월 중 사실을 통해, 원전 수출을 위해 기술 자립화, 전문 인력 양성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고준위 핵폐기물의 재처리권 확보가 절실하다. 1974년 체결한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한국은 사용후핵연료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전용할 경우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국내 저장 용량은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재처리할 수 있게 되면 그 94~95%를 에너지원으로 환원할 수 있는 만큼 2014년 협정 개정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원자력 한국의 역량과 평화이용 의지를 각인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해 민감할 수 있는 핵주기에 대해 거론했다.

<서울신문>도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핵 재처리권의 확보를 통한 평화적 핵 자주권 확립이다.”고 직격적인 언급을 하면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는 폐연료봉의 재처리 및 환경적 처리를 위한 필수 과정이다. 그러나 한국은 1974년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 협정에 따라 미국 측의 사전동의나 허락 없이 우라늄을 농축 및 재처리할 수 없다. 더구나 1991년 11월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쌓여가는 핵 폐기물도 문제지만 앞으로 원전 플랜트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핸디캡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평화적 핵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의 핵 자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핵무장이나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문제 삼는다면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하면 된다. 핵 재처리권 없이는 원전수출 강국의 목표가 공허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핵주권’을 원전 수출과 연계했다.

### 주요 외신

주요 외신들은 UAE 원전 건설 공사를 한전 컨소시엄이 수주한 데 대해 수주 당일 ‘놀라운 선택’ (Surprise Choice)’이라며 한국의 쾌거로 평가했다.



한전 원자력사업처 UAE사업팀이 UAE 원전 수주가 확정되자 환호를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프랑스, 미국·일본 등 강력한 라이벌을 누르고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따낸 사실을 타전하면서, 이는 전략적인 이유로 다른 컨소시엄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던 각국 전문가들에게 경악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dpa통신은 한국의 원전 수주와 관련, 셰이크 칼리파 아랍에미리트 국왕이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상대 국가에 이익이 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천명한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AP통신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컨소시엄에 원전을 맡긴 배경에 관해 ENEC의 발표를 인용, UAE정부의 사업 요구 조건을 가장 충실하게 맞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FP통신도 한전 컨소시엄이 원전을 수주한 것은 아랍에미리트 측이 원하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60년 동안 원전의 운용과 유지를 담당하는 2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계약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과 현대그룹, 미국 웨스팅하우스, 일본 도시바로 구성된 한전 컨소시엄의 승리는 한국의 첫 원전 플랜트 수출로, 그간 프랑스의 아레바와 미국의 GE가 지배해 왔던 전 세계 핵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